빛잃은 광엑스포 주제영상관

90억 짜리 6개월 넘게 방치 … 불 꺼지고 쓰레기 '수북'

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엑스포 주제영상관'이 광엑스포가 끝났으나 6개월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 대한건축협회로부터 건축문화대상 우수상까지 받은 이 건물이 쓰임새를 찾지 못해 도심 흉물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사전에 광엑스포 이후 건물 이용 방안에 대한 검토조차 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오전 9시께 찾은 주제영상관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1층 출입구에 노란색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나 곧 쓰러질 정도로 허술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바리케이드를 넘어 2층으로 향하는 복도로 들어가자 바닥과 안전손잡이에는 먼지가 수북했다. 약 20m를 걸어 주제영상관 2층 출입문 앞에 도착하니 천장에 설치된 6개의 조명이 아무도 없는 영상관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또 2층 출입문 바로 옆에 설치된 원형 계단을 통해 옥상과 연결된 유리문은 훼손돼 닫히지 않아 외부로부터 먼지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었으며, 건물 곳곳에서는 담배 꽁초와 과자 봉지 등 쓰레기가 발견됐다.

수 억원을 들여 주제영상관 앞에 조성한 '빛 음악분수' 역시 광엑스포 이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 54m, 폭 17m에 수중펌프 24, 연출노즐 276개, LED 조명 246개 등 최첨단장비를 갖췄으나 실제 사용될 수 있을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시는 광엑스포를 치르면서 이들 주제영상관과 빛음악분수 등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120억원을 투입했다.

이날 주제영상관 인근 상무시민공원을 산책하던 박모(55·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주제영상관 앞을 지날 때마다 '광주세계광엑스포가 열렸던 건물이 맞나'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제영상관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광주시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1월까지 광엑스포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사후 활용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에 주제영상관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주제영상관이 조만간 광주의 중요한 문화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엑스포를 대비해 지난해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1669㎡ 규모의 '주제영상관'을 건립했으며, 이 건물은 지난 10월 대한건축협회로부터 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소재한 '광엑스포 주제영상관'이 지난 5월 광주세계광엑스포 폐막 뒤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교육 비전 만들기

'교육 혁신추진단' 본격 활동 돌입

교사 등 13명 4개월간

광주교육 비전을 만들기 위한 '교육 혁신추진단'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교육 혁신추진단'(단장 박재성·혁신추진단)이 발족, 교육의 장기 로드맵 마련 등 업무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혁신추진단은 교육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걸맞는 교육행정·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꾸려졌다.

혁신추진단은 조직혁신팀과 정책혁신팀으로 구성됐으며, 교육 전문직·일반직, 현직 교사 등 등 13명이 활동한다.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한시 운용된다.

조직혁신팀은 교육행정·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조직진단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책팀은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과 개혁과제 실천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혁신추진단은 2011년 광주교육계획과 교육감의 임기 중에 추진할 4개년 '광주교육발전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박재성 혁신추진단장은 "65년 동안 굳어진 비효율적인 교육 관행을 올바르게 바꾸어가는 것이 추진단의 역할이지만, 교육혁신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사·교육 공무원들과 협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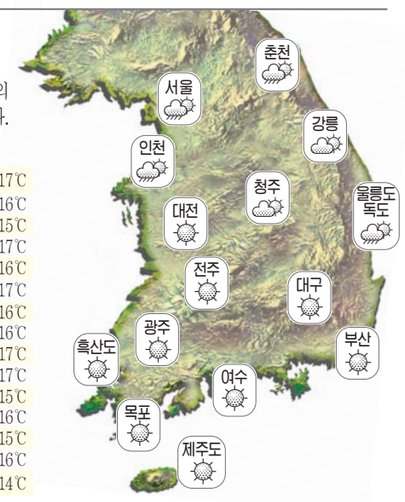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04분 해짐 17시 29분 달뜸 12시 15분 달짐 22시 58분

가을하늘 모래바람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8/17℃
목 포	맑음	9/16℃
여 수	맑음	9/15℃
나 주	맑음	6/17℃
완 도	맑음	10/16℃
구 례	맑음	5/17℃
해 남	맑음	7/16℃
장 흥	맑음	7/16℃
고 흥	맑음	7/17℃
순 천	맑음	7/17℃
영 광	맑음	7/15℃
진 도	맑음	8/16℃
전 주	맑음	7/15℃
남 원	맑음	4/16℃
흑산도	맑음	10/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먼바다	서~북서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3.0m

	밀물	썰물
목포	05:35 18:29	10:55 --:--
여수	00:14 13:13	06:18 19: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날 씨						
최저/최고	6/19	9/14	3/13	4/14	5/15	5/16

대학강사 면직·권고사직 엄격 제한

교과부, 신분보장책 마련

30여년 만에 교원 지위가 주어진 대학강사(종전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책이 마련돼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과 권고사직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강사를 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들이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보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강사는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 임용계약 위반 등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2010년 4만2천500원에서 내년 5만2천500원으로 올리는 등 해마다 1만원씩 올려 2015년 9만원을 넘기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12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때아닌 황사

광주·전남 주의보 발령 … 오늘 오전까지 영향

11일 밤 8시를 기해 광주·전남지역에 발효된 황사주의보가 12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고비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내몽골과 황토고원을 지나면서 강해져 광주·전남지역에 11일 밤부터 12일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다"고 11일 예보했다.

이번 황사는 이동속도가 빨라 광주·전남에 영향을 주는 시간은 다소 짧겠지만 12일 새벽께 미세먼지 농도는 40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황사는 12일 오전 대부분 동해 상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황사가 짙어질 가능성도 있어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11월 황사는 기상관측(1939년) 이래 총 7회 관측됐으며, 1973년 2회·2002년 2회·2005년 3회였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내년부터 대교협에서 대학 평가·인증

내년부터 대학의 운영 전반을 외부기관이 심사해 인증서를 주고 이를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 이런 인증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후 5년간 지정해 내년부터 평가·인증 절차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는 대교협이 인증기준을 정해 대학들에 제시하면 대학은 이에 맞춰 자체평가를 한 뒤 대교협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대교협은 다시 이를 토대로 심사해 인증기준에 충족하면 대교협 회장 명의로 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전통시장에 3년간 300억 투입했건만…

절반이 가스시설 위험등급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광주시가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전통시장 절반 가까이 가스시설 폭발 위험에 방치되는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호권 광주시의원(민주·북구5)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내 26개 시장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46.2%인 12개 시장이 최하인 E(위험) 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6개 점검 시장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은 양동시장과 송정 5일 시장, 비아 5일 시장 등 3곳(11.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